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를 제안드립니다!

공동제안자: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승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우지수,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경은
수신: 각 대학 총학생회 및 학생회 대표자

1 주최 단체 소개

- 명칭: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 공동대표: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승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우지수,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경은
- 참여단위(3.23 기준):
 -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 경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 고려대 총학생회,
 - 동덕여대 총학생회,
 - 삼육대 총학생회,
 -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 순천향대 총학생회,
 - 이화여대 총학생회,
 - 인천대 총학생회,
 - 전북대 총학생회,
 -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 한양대 총학생회,
 - 홍익대 총학생회,
 - KAIST 학부 총학생회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연세대 이과대학 학생회

2 주최 단체 구성 및 사업 취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탄핵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광장을 채웠던 촛불의 힘, 국민의 힘은 '박근혜 없는 봄'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촛불의 승리,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적폐가 청산된 대한민국, 대학을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왜 국민들이 아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낱알이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존재했던 비선실세 최순실, 청와대와 재벌가의 정경유착,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언론의 자유 침해, 수많은 국민의 생사가 걸린 참사의 상황에서도 일관했던 무능. 박근혜 구속을 시작으로 겹겹이 쌓인 대한민

국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학생들의 삶 또한 무너져갔습니다. 취업과 구조조정에만 매몰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대한민국이 텅텅 빌 때까지 중동으로 가라'는 대통령과 사상 최악의 실업율, 학점과 알바에 허덕이며 인간관계까지 단절해나가야 하는 삶 속에서 대학생들이 결국 들었던 말은 '부러우면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와 함께 대학의 적폐도 함께 청산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국민과 대학생들은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미 19대 대선은 단지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할 '선거'가 아닙니다. 뿌리 깊은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정의, 생명과 평등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터전, 대학 또한 자본의 논리가 아닌 지성과 정의가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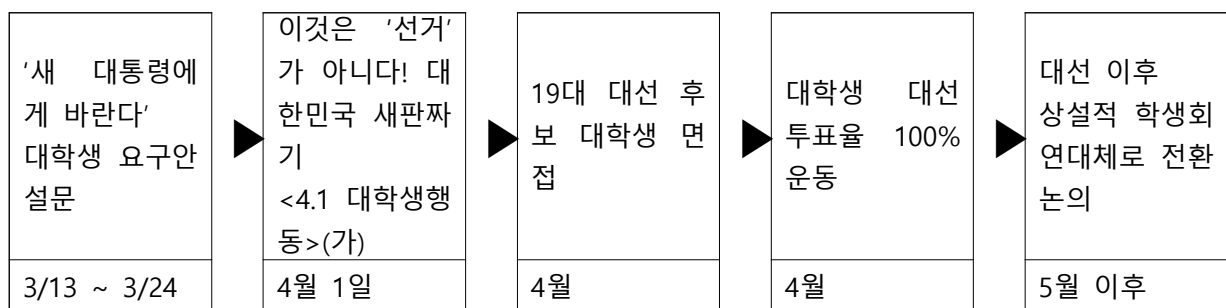
지난 1월2일 중앙일보 1면에는 『"투표하겠다" 92%, 대선 열쇠 쥔 20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온 대학생들이 조기대선에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투표를 할 것인지는 대선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요구를 대선 후보들에게 실현해나갈 것을 약속받고 정권교체, 대한민국과 대학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서려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과 미래는 대학생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대학생들의 삶을 새롭게 바꿀 대통령을 선택할 것임을,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임을, 여소야대를 만들었던 20대의 총선 투표를 넘어 투표율 100% 달성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의 분노와 행동, 힘과 역동성, 활기와 생기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사업 해설

3-1. 사업 흐름



3-2. 현재까지의 활동

1)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선포 기자회견<대학생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

3월 13일 오전 11시에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학생들의 의제와 요구를 알려내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요구가 더욱 더 힘을 갖기 위해서, 각 대학 학생회들을 모아 연대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번 19대 대선에 대응해나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2)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학생 요구안 마련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대학 등록금, 2)대학 교육 문제 3)청년 일자리, 4)청년 생활비, 5) 사회 현안 5대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와 세부해결 방안, 그리고 그 밖의 요구들에 대해 묻는 전국 대학생 설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네트워크에 함께 하고있는 국공립대, 교대, 이공계열, 보건계열의 요구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생의 요구를 포괄하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하고 답변을 요청하려 합니다.

3)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안 실현 촉구 및 4.1 대학생 행동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부터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학생 대선 요구안 마련을 위해 실시된 설문의 결과를 간략하게 발표했습니다. 또한 각 전공과 계열별 대학생의 요구 실현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공립대의 재정 안정화, 이공계열의 연구환경 개선과 전문연구요원의 일방적 폐지 반대, 교사대 통폐합 반대와 국정교과서 폐기 등에 대해서 전달 했다. 또한 지금 설문 결과로 제시되고 있는 92%를 넘어서 대학생투표율 100%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4월 1일 대학생들의 행동으로 대학생들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촉구할 것임을 선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4) 이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19대 대선 대한민국 재판짜기 <4.1 대학생 행동>

지난 4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를 외치는 <4.1 대학생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높은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와 청년일자리 보장, 대학문제의 해결과 민주적 대학운영, 대학생 생활비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한국사회 적폐청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의 공연과 발언으로 광화문광장을 채우고, 이어서 종로와 을지로를 지나며 퍼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1일, 전국의 대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4.1 대학생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며
새로운 대통령에게 전달할 요구들을 외쳤습니다.

높은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와 청년일자리의 보장을,
대학문제의 해결과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대학생 생활비 인하와 최저임금 인상을,
그리고 한국사회의 적폐를 청산을 요구하였습니다.



3-3. 앞으로의 활동계획

1) 19대 대선 후보 대학생 면접 (4월)

대선 후보를 초청하여 대학생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에 대해 '대학생 면접관'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하여 대선 후보와 직접적으로 토론하고 질의하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언론사를 섭외하여 방송과 온라인 동시 송출,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브와 같은 실시간 여론수렴 방식 등,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열띤 토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 (선택) 대학별로 가능한 대학은 '19대 대선 00대 대학생 면접관'을 모집하여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할 바를 사전에 토론하고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기획 중입니다.

2) 대학생 대선투표율 100% 운동 (4월)

"2030세대의 투표 의향이 5060세대를 뛰어넘어 92.2%로 높게 나왔다.(중앙일보)"는 기사처럼 뜨거운 대학생들의 투표열기를 '100%로 만들자'는 구호 하에 우리의 요구 실현을 위해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전투표 홍보 및 투표참여운동) 또한 대학생들의 투표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기 위해 전국 총학생회의 동시다발 투표선언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대선 이후 대학생 상설적 기구로 전환 논의 (5월 이후)

-대선이 끝난 후 지속적으로 대학생 요구안 실현에 대한 감시와 촉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대학학생회들의 네트워크 기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상설적 기구로의 전환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6일(목) 오후 7시 고려대학교에서 네트워크 대표자 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